

新時代の日韓共同課題フォーラム

日韓の外国人政策と多文化社会

「共生社会」創造に向けた地域日本語学習活動

山田 泉(元 法政大学教授)

韓国は移民受け入れ政策としての第二言語教育が、法律の制定の下に公的な制度化による整備を続けてきたことに反し、日本はこれまで、国が、日本には移民がいないとして、ネグレクトを決め込んできました。そこで、一部の地方公共団体は、主に住民ボランティア等に頼る形で、あるいは住民のみが自主的なボランティア活動として外国人等住民の日本語学習を支援する活動を続けてきました。

しかし、日本も外国籍住民の増加に伴い、2018年、事実上の就労ビザである「特定技能」の在留資格を新設し、入国管理局を出入国在留管理庁に整備することを決定し、2019年度から施行しています。また、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についても、2019年に「日本語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を制定し、その下に日本語教育の制度、システムの整備を急いでいます。文化庁では、有識者会議を設け、日本語教育機関や日本語教員の（国家資格）認定のあり方の検討も続けています。

そのような中で、ボランティアを中心として行われてきた活動の意義、果たしてきた役割の総括とこれらの活動が培ってきた理念、ノウハウ等の継承、発展についてどのように考えるべきかが問われていると考えます。わたしは、「生活者としての外国人」に対し、国や地方公共団体が行う第二言語としての日本語の教育と併せて、これまでの外国人等と日本人等が社会教育として相互学習する活動の継続発展が必要と考えます。

今回のフォーラムでは、大きく異なった双方の国の取り組みを対照することから、多文化共生社会のあるべき姿を模索し、互いによりよい施策の構築に向けた議論ができることを期待します。

1 自分自身について

1950年生まれ（72歳） 高校・大学などの教員を30数年勤めてきました。

1982年～84年 中国大連の語学大学で日本語教員（連れ合いと1歳の長男と外国人家族の体験）をした後、中国帰国者に対する日本語教員、文化庁国語課（日本語教育）専門職員を経て、1988年から大学教員として、留学生の日本語教育、日本語教育教員養成、多文化教育関係科目を担当しました。2003年～2017年は法政大学キャリアデザイン学部教員として、「外国人」を含めた人の自己実現に向けての歩み方にも関心を持ちました。

専門は、日本語教育、多文化教育で、移民がマジョリティと対等・平等に社会参加し、自己実現に向けて歩いていけるようにするために何が必要かに関心を持っています。

2009年～11年に、移民受け入れ先進国の韓国から学ぶために「新矢科研」の調査研究チームに参加、2012年～13年（2012年度）には、韓国済州道（島）で疑似移民として参与観察を行いました。

2 外国につながる人たちと共に生きる社会を創る

1) 「文化」の相違

中国での「異文化」体験から（例：公共交通利用マナー：「悪い」のではなく「違う」のだ！）
中国帰国者定着促進センターでの体験から（例：自治体職員担当者的話 / 追跡調査で）
女子大学教員時代に留学生と日本人学生から（例：花火の事故のニュース）
文化（世界の見方）は、帰属社会から学ばされる
（例：日本は、「察して、忖度する」。中国は、「ダメ元で言ってみる」。）

2) 多様な文化間の学びから共生社会の創造へ

マジョリティ（ホスト）側の異文化受け入れ能力養成
「エポケー」(epoche(ギ)) 判断保留（の能力）
多文化教育：多様性から学び、違いを受け入れる意識を育み、違いを調整する能力を育む
自らの文化を理解し、その文化から自らを解放する。そして、自らの手で自らの文化を作る
世界を読み解き、世界を作り直す。（自己変容、社会変革） 「人が変わる、社会を変える」

3 地域日本語学習活動の場が持っている力

1) マジョリティ（日本人等の側）とマイノリティ（外国人等の側）の平行な関係

（例：コンビニ弁当・コンビニの店員と客の関係）
外国人労働者、結婚移住女性、外国につながるこども、…

2) 出会い関わる場としての地域の日本語教室

地域住民ボランティアによる日本語学習支援活動（まずは、人対人という関係性の気付き）
マックス・フリッシュ： 「労働力を呼んだはずが、来たのは人間だった」というメタファー
→ 社会が対等・平等な「人」として対応すべき + 人が同じ人として関わるべき
社会的な力関係を可能な限りフラットにするために： まず、絶対的力関係を理解する
マジョリティ（受け入れ・ホスト）側の日本語能力を高める： 「やさしい日本語」活動
バルネラビリティ (vulnerability) 葛藤を持ち続ける

3) 移民が存在する文脈と新たな社会創造

1985年、ユネスコ第4回国際成人教育会議（パリ）「学習権宣言」： 「自分自身の世界を読み取り、歴史をつづる」こと

山田→ 「マイノリティをマイノリティにしている社会の問題を読み取り、自らをマイノリティにしている、自らと社会と双方の中にある「文化」から自らを解放すること」

山田 (2022, p. 141) 「共生社会」創造を目指した外国人移住者との地域日本語学習活動、佐藤一子、
大安喜一、丸山英樹編著『共生への学びを拓く SDGs とグローバルな学び』エイデル研究所
グローバル経済競争で生き抜くこととそこから自由になって新たな社会を創造すること

そうは言っても、一般社会に受け入れられるためには：「戦略的同化」が必要： 現実的対応
[二つの地域日本語教育]

- (1) 「社会教育」としての「社会の変革を目指した相互学習」
- (2) 「補償教育」としての「社会への参加を目指した言語習得」

山田泉（2002、pp. 118-135）「地域社会と日本語教育」細川英雄編『言葉と文化を結ぶ日本語教育』凡人社

4) 法律による「認定」化への危惧

2019年 「日本語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制定

日本語教育施策の整備（有識者会議、議連、関係団体等）

これまでの草の根ボランティア活動が培ってきた理念、ノウハウ等の継承

人と人との関係性を置き去りにしない施策、制度化、整備である必要

4 日本社会における「地域日本語教育」のこれまで

1980年代「インドシナ難民」、「中国帰国者」、結婚移住外国人等「生活者」の急増
バブル期の外国人就労者の増加

生活者として必要な日本語習得

→ 公的対応がほとんどない中での同じ地域住民ボランティアによる学習支援

1990年前後 ボランティア日本語教室の開設

1994年 文化庁「地域日本語教育推進事業」

2007年 文化審議会国語分科会に日本語教育小委員会を設置： 「生活者としての外国人」に対する日本語教育の内容・方法の検討

2019年 「日本語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制定（第十七条：国民への啓発）

現状の取組（山田2022「共生社会」創造を目指した外国人移住者との地域日本語学習活動」、佐藤一子他編著『共生への学びを拓く』エイデル研究所、p. 146）から転載）

[表] 日本語教育機関・施設数、教師等数、学習者数（2020. 11. 01時点、（ ）内は前年分）

	機関・施設数	教師等数	学習者数
大学等及び日本語学校	1,139 (1,184) 機関	15,970 (18,145) 人	98,815 (179,738) 人
その他の機関・施設	1,377 (1,358) 機関	25,785 (28,266) 人	62,106 (98,119) 人
計	2,516 (2,542) 機関	41,755 (46,411) 人	160,921 (277,857) 人

※ 文化庁2021、2020国内の日本語教育の概要から筆者による作表

2023年度文化庁日本語教育関係予算要求・要望額 約31億円（内13億円は外国人児童生徒用）

한일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사회

「공생사회」 창조를 위한 지역일본어 학습활동

야마다 이즈미

한국은 이민 받아들이는 정책으로서의 제 2 언어 교육이, 법률 제정 아래에 공적인 제도화에 의한 준비를 계속해 온 것에 반해, 일본은 지금까지 나라가 일본에는 이민이 없다고 하고 Neglect(유기)해 왔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주로 주민자원봉사 등에 의지하는 형태로, 혹은 주민만이 자주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외국인 등 주민의 일본어 학습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외국인 주민의 증가에 따라 2018 년 사실상 취업비자인 '특정기능'의 재류자격을 신설하고 입국관리국을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정비하기로 결정, 2019 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 2 언어로서의 일본어에 대해서도, 2019 년에 「일본어 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그 아래에 일본어 교육의 제도, 시스템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화청에서는, 유식자회의를 마련해, 일본어 교육 기관이나 일본어 교원의 (국가자격) 인정의 본연의 방법의 검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행해져 온 활동의 의의, 완성해 온 역할의 총괄과 이러한 활동이 길러 온 이념, 노하우 등의 계승,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해, 나라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제 2 언어로서의 일본어의 교육과 아울러, 지금까지의 외국인등과 일본인등이 사회 교육으로서 상호 학습 하는 활동의 계속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크게 다른 양국의 대응을 대조함으로써 다문화공생사회가 있어야 할 모습을 모색하고 서로 더 나은 시책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 스스로에 대한 소개

1950 년생(72 세) 고등학교·대학 등의 교원을 30 여년간 근무해 왔습니다. 1982 년~84 년 중국대련의 어학대학에서 일본어교원(동반과 1 세의 장남과 외국인가족의 체험)을 한 후, 중국 귀국자에 대한 일본어교원, 문화청 국어과(일본어교육) 전문 직원을 거쳐 1988 년부터 대학교원으로서 유학생의 일본어교육, 일본어교육교원양성, 다문화교육 관계과목을 담당했습니다. 2003 년~2017 년은 호세이대학 경력디자인학부 교원으로서 「외국인」을 포함한 사람의 자기 실현을 향한 행보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의 전문분야는 일본어교육, 다문화교육으로, 이민이 마조리티와 대등·평등하게 사회 참가해, 자기 실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듯이)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 년~11 년에 이민 수용 선진국의 한국에서 배우기 위해 '신야과학연구'의 조사 연구팀에

참가, 2012 년~13 년(2012 년도)에는 한국 제주도(섬)에서 약식이민으로 참여 관찰을 실시했습니다.

2 외국으로 이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든다

1) “문화” 의 차이

중국에서의 「이문화」 체험으로부터(예: 대중교통 이용 매너: 「나쁜」 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중국 귀국자 정착 촉진 센터에서의 체험으로부터(예: 지자체 직원 담당자의 이야기 / 추적 조사로)

여자대학 교원 시절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으로부터(예: 불꽃 사고 뉴스)

문화(세계의 견해)는 귀속사회에서 배운다.

(예 : 일본은 촌탁(미루어짐작)하고, 중국은 안되더라도 한번 말해본다)

2) 다양한 문화간의 배우기로부터 공생사회의 창조에

마조리티 (호스트) 측의 이문화 수용 능력 양성

「에포케이」 (epoche(기)) 판단 보류(의 능력)

다문화 교육 : 다양성으로부터 배워, 차이를 받아들이는 의식을 키우고, 차이를 조정하는 능력을 기른다

스스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한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문화를 세상을 읽고 세상을 재구성한다. (자기변용, 사회변혁) 「사람이 바뀌는, 사회를 바꾼다」

3 지역 일본어 학습 활동의 장이 가지고있는 힘

1) 마조리티 (일본인 등의 측)와 마이너리티 (외국인 등의 측)의 병렬 관계

(예: 편의점 도시락·편의점 점원과 손님의 관계)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외국으로 이어지는 아이, ...

2) 만남에 관련된 장소로서 지역의 일본어 교실

지역 주민 자원봉사에 의한 일본어 학습 지원 활동(우선은, 인대인이라고 하는 관계성의 깨달음)

맥스 프리시 : “노동력을 불러들였는데 실제 온 것은 인간이었다”는 메타퍼

→ 사회가 대등·평등한 「사람」으로서 대응해야 하는++사람이 같은 사람으로서 관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힘 관계를 가능한 한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절대적 힘 관계를 이해한다

마조리티(수용·호스트) 측의 일본어 능력을 높인다: “친화적인 일본어” 활동

바르네라빌리티(vulnerability) 갈등을 계속

3) 이민이 존재하는 문맥과 새로운 사회 창조

1985년, 유네스코 제4회 국제 성인 교육 회의(파리) 「학습권 선언」 :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계속한다」

야마다→ 「마이너리티를 마이너리티로 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읽고, 스스로를 마이너리티로 하고 있는, 스스로와 사회와 쌍방 안에 있는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는 것」

야마다(2022, p.141) 「“공생 사회” 창조를 목표로 한 외국인 이주자와의 지역 일본어 학습 활동”, 사토 이치코, 대안 기이치, 마루야마 히데키 편 저 “공생에의 배움을 개척하는 SDGs 현지 학습 ’에이텔 연구소

글로벌 경제 경쟁에서 살아가는 것과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어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것 그렇다고 해도, 일반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전략적 동화」가 필요: 현실적 대응 [두 지역 일본어 교육]

(1) 「사회 교육」으로서의 「사회의 변화를 목표로 한 상호 학습」

(2) 「보상 교육」으로서의 「사회에의 참가를 목표로 한 언어 습득」

야마다 이즈미(2002, pp.118-135) 「지역사회와 일본어 교육」 호소카와 영웅편 「말과 문화를 잇는 일본어 교육」 범인사

4) 법률에 의한 「인정」 화에 대한 우려

2019년 “일본어 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일본어 교육 시책의 정비(유식자 회의, 의련, 관계 단체 등)

지금까지의 풀뿌리 자원 봉사 활동이 길러 온 이념, 노하우 등의 계승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시책, 제도화, 정비일 필요

4 일본 사회에서의 「지역 일본어 교육」의 지금까지

1980년대 '인도차이나난민', '중국귀국자', 결혼이주 외국인 등 '생활자' 급증
버블기 외국인 취업자 증가

생활자로서 필요한 일본어 습득

→ 공적 대응이 거의없는 가운데 같은 지역 주민 자원 봉사자에 의한 학습 지원

1990년 전후 자원봉사 일본어 교실 개설

1994년 문화청 “지역 일본어 교육 추진 사업”

2007년 문화 심의회 국어 분과회에 일본어 교육 소위원회를 설치: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의 내용·방법의 검토

2019년 「일본어 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제17조: 국민에 대한 계발)

현재의 대처(야마다 2022 「「공생 사회」 창조를 목표로 한 외국인 이주자와의 지역 일본어

학습 활동」, 사토 이치코 타편 저 「공생에의 배우기를 파이다」 에이델 연구소, p.146)로부터 전제)

[표] 일본어교육기관·시설수, 교사등수, 학습자수 (2020. 11. 01 시점, ()내는 전년분)

[表] 日本語教育機関・施設数、教師等数、学習者数 (2020.11.01 時点、()内は前年分)

	機関・施設数	教師等数	学習者数
大学等及び日本語学校	1,139 (1,184) 機関	15,970 (18,145) 人	98,815 (179,738) 人
その他の機関・施設	1,377 (1,358) 機関	25,785 (28,266) 人	62,106 (98,119) 人
計	2,516 (2,542) 機関	41,755 (46,411) 人	160,921 (277,857) 人

※ 文化庁 2021、2020 国内の日本語教育の概要から筆者による作表

※ 문화청 2021, 2020 국내 일본어 교육의 개요에서 필자에 의한 작표

2023 년도 문화청 일본어 교육 관계 예산 요구·요망액 약 31 억엔(내 13 억엔은 외국인 아동 학생용)